

2 칼빈의 성령 사역론 :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김선권 목사 /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박사과정

1. 서론

두메르그(E. Doumergue)는 칼빈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 말할 때 고갈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¹⁾ 가녹지(A. Ganoczy) 역시 칼빈의 성령론은 그의 모든 사상 곳곳에 출현한다고 말하였다.²⁾ 르리에브르(C. Lelièvre)

1) Emile Doumergue, *Jean Calvin :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IV, La pensée religieuse de Calvin*(Lausanne, Georges Bridel & Cie Editeurs, 1910), pp. 240-241.

2) Alexandre Ganoczy, *L'aventure de la Réforme : Le monde de Jean Calvin*, Sous la direction de Pierre Chaunu(Paris, Hermé, 1986), p. 135. 또한 볼로그네시(P. Bolognesi)는 성령에 대한 칼빈의 신학을 모든 그의 작품 안에 그리고 모든 다른 Loci들에 흩어져 있는 주제로 보았다. Pietro Bolognesi, "Calvin théologien du Saint-Esprit," in *L'actualité de Jean Calvin 1509-2009*(Lausanne, L'Age d'Homme, 2009), p. 131. 로르도르프(B. Rordorf)는 칼빈신학에서 성령은 그의 신학의 주요한 주제로서 주목할 만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언급하였다. Bernard Rordorf, "Etiam Extra Ecclesiam : L'action de l'Esprit Saint selon Calvin," *Etudes Théologiques et Religieuses*, 2009/3, p. 345.

와 워필드(W. Warfield)는 칼빈을 가리켜 '성령의 신학자'(théologien du Saint Esprit)라 칭하였다.³⁾ 칼빈을 가리켜 성령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신 중심의 신학자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자로 부르는 것만큼 정당한 표현이 될 것이다.⁴⁾

이 논문의 목적은 성령의 신학자로서 칼빈의 성령 사역론의 이해를 다루는데 있다. 칼빈이 성령의 신학자라는 사실은 그의 작품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강요」(*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의 전체 분량의 3분의 2는 그의 성령론에 할애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독교강요」 1권 1장부터 10장의 「프롤레고메나」(prolegomena)에서 성령의 내적 증거로서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됨과 권위의 토대가 됨을 말하면서 칼빈은 그 토대 위에 그의 전체 신학을 세웠다. 그는 「기독교강요」 2권에서 성령의 담지자와 성령의 파송자로서 그리스도를 말하였다. 즉, 성령론의 관점에서 기독교론을 다루었다. 칼빈은 성령론적 기독교론(「기독교강요」 2권) 또는 기독교론적 성령론(「기독교강요」 3권)을 동시에 강조했다.⁵⁾ 무엇보다 칼빈은 구원론을 다

루는 「기독교강요」 3권과 교회론을 말하는 「기독교강요」 4권을 성령 사역의 빛에서 고찰했다. 「기독교강요」와 마찬가지로 칼빈의 주석과 설교 역시 성령의 사역들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우리는 그의 저서들을 살펴면서 칼빈이 말하는 성령론, 특별히 성령의 사역론이 그의 전체 신학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해명할 것이다. 칼빈의 성령론은 창조주 성령의 사역과 구속주 성령의 사역을 구별하는 것으로서 출발한다. 성령의 사역이 교회와 성도로 제한되지도 않으면서, 즉 창조세계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성령의 사역이 인간의 구원을 실현하는데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결국 칼빈이 말하는 성령 사역들에서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칼빈의 성령론은 기독교론을 현존하게 하며 살아 있게 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성령의 궁극적 사역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칼빈에게서 성령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union d'un chrétien avec Christ) 또는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주'(l'habitation du Christ)로서의 성령의 사역이다. 그리고 이 현존하는 기독교론으로서 성령의 사역이 창조 사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필 것이다. 칼빈의 성령론은 오순절 교단에서 강조하는 성령론 못지않게 성령 사역론의 중요성을 이미 강조했다며, 동시에 성서적이며 교회론적인 성령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 기준점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성령과 그의 사역

칼빈에게서 '성령'(Saint Esprit)은 누구인가? 첫째, 성령은 '하나님 자신'(Dieu lui-même)이다. 그는 고대교회의 삼위일체론적 틀 안에서 전통적 사고를 충실히 따른다. 칼빈은 고대교회의 신앙고백을 인정하면서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주장했다.⁶⁾

3) Charles Lelièvre, *La Maîtrise de l'Esprit : Essai critique sur le principe fondamental de la théologie de Calvin*(Paris, Cahors, A Coueslant, 1901.) B. B. Warfield,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 B. Warfield*, V. I. Presbyterian and Reformed(Nutley, 1970), p. 213. 헷셀링크(J. Hesselink)는 루터와 부처 역시 성령의 신학자라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에게서 성령의 역할은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비해 더욱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John Hesselink, "Pneumatology," *The Calvin Handbook*, ed., Herman J. Selderhuis(Michigan, Eerdmans, 2009), p. 303.

4) 신적 주권과 예정을 강조하는 학자들에게서 칼빈은 신 중심적 신학자이다. 바르트에 영향을 받은 니젤과 파커와 같은 학자들에게 칼빈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자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로 불릴 수 있다. 사실상 칼빈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의 신학을 균형 있게 강조하고 발전시켰다. 그래서 헷셀링크의 말대로 그는 철저하게 삼위일체적 신학자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John Hesselink, "Calvin's theolog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Edited by Donald K. McKim(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79. 나는 칼빈의 신학을 "성서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삼위일체 신학"(La théologie trinitaire centrée sur Christ qui se révèle dans la Bible)이라 부르고 싶다.

5) 그리스도와 성령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은 칼빈의 신학적 공리 중의 하나이다. Bernard Rordorf, "L'inachèvement de la pensée trinitaire dans la théologie de Calvin." *Le christianisme est-il un monothéisme?*, pp. 223-224.

6) IRC I, xiii, 2, 19.

둘째, 성령은 ‘자신의 고유성을 가지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계시는 세 번째 인격’(la troisième personne qui possède sa propriété)이다. 즉, 성령은 비인격적 힘이나 승화된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성령은 삼위 안에서 고유한 인격을 갖는다. 칼빈에게서 인격이란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고유성들을 표현하는 말이다.⁷⁾ 칼빈은 성령의 인격을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한 ‘실재’(une résidence)로 보고, 성령이 다른 실재와 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양도할 수 없는 고유성’(propriété incommunicable)에 의해 구별된다고 말한다.⁸⁾ 이 실재는 본질과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로 결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본질에 대해 구별된 ‘표지’(marque)를 갖는다.⁹⁾

셋째, 성령은 하나님의 ‘힘’(vertu)과 ‘능력’(puissance)과 ‘효력’(efficace)이다. 칼빈은 삼위 각각의 고유성을 다루는 곳에서 성령의 고유성을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행위의 힘과 효력이다.”¹⁰⁾ 성령은 도구적, 수단화된 방식에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그 자신이 힘과 능력이다.¹¹⁾ 무엇보다 이 성령은 신적 계획의 효력과 실행에 있어서의 힘과 능력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활동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사역의 실행에 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어떠한 신적 인 것이 실현되지 않는다. 칼빈은 성령을 “그의 힘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손”(la main de Dieu)이라 칭하였다.¹²⁾

7) “Mais ce mot de Personnes en ceste matière est pour exprimer les proprieté, lesquelles sont en l'essence de Dieu.” Calvin, *CO* 47. col. p. 469.

8) *IRC* I xiii, 6.

9) “세 실재는 상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고유성에 의하여 서로 구별된다. 각자에게 고유한 것은 다른 실재에게 전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구별의 표지를 위해 성부에게 속한 모든 것은 성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옮겨질 수 없기 때문이다. …… 각자에게 고유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전달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부에게 속한 구별의 표지는 성자에게 속하거나 성자에게 옮겨질 수 없기 때문이다.” *IRC* I. xiii. 6.

10) *IRC* I. xiii. 18.

11) Rordorf, “L'inachèvement de la pensée trinitaire dans la théologie de Calvin,” p. 224.

12) *IRC* III. i. 3. 성령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구성하는 어휘들은 힘, 효력, 권능, 손, 자극 등의 용어들뿐 아니라 「기독교강요」 3권 1장에서 칼빈이 성경을 따라 성령에 대해 말하는 표현들은 놀랄 만큼 풍요롭다. ‘샘’(fontain), ‘보증’(arrhe), ‘인’(sceau), ‘물’(eau), ‘불’(feu), ‘기름’(huile), ‘열쇠’(clef).

칼빈은 「기독교강요」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의 지식을 구별한다. 하나님은 우주 창조와 관련해서 ‘창조주 하나님’(créateur)으로 성서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인격과 얼굴로서 자신을 ‘구속주 하나님’(rédeempteur)으로 나타내셨다. 칼빈에게서 성령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은 이 구별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나타내신 것을 말한다. 게다가 이 창조주 성령과 구속주 성령은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성령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칼빈은 성령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별하였다. 1) 창조 안에서 성령의 사역, 2) 인류 안에서 성령의 사역, 3) 인간의 구속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다. 최종판 「기독교강요」 1권에서 성령의 신성을 확립할 때 칼빈은 성령의 행동(action)을 3가지 방식으로 구별한다. 첫째, 성령은 천지와 만물의 생명과 운동의 원천이다. 둘째,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분배자이다. 셋째, 성령은 중생, 칭의, 성화, 능력과 은사들의 시작, 근원, 저자이다. 이와 같은 구별은 1539년 그의 로마서 주석 8 : 14에서 이미 나타났다.

“성령의 통치의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1.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통해 유지되고 기동하는 성령의 우주적 통치가 있다. 2. 각각의 인간 안에 그러면서 각각의 인간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성령의 특별한 통치가 있다. 3.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성화를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로 구별해서 그의 자녀로 여기시는, 말하자면 그의 택한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으로 이해한다.”¹³⁾

우리는 칼빈의 이 주장에 근거해서 성령 사역을 우주론적 사역, 인간론적 사역, 그리고 구원론적 사역으로 구별할 수 있다. 우선 우주론적 사역은 가장 넓은 차원에서 창조세계, 여기에는 동물적 생명과 무의식적 생명을 포함한다. 그 다음 인간론적 사역은 인간의 합리적 생명과 관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과학, 기술, 문화, 제반 학문 등을 포괄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구원론적 사역

13) Calvin, *Le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8 : 14.

은 영적 생명으로서 성도들과 교회에만 배타적으로 관계한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 말하자면, 처음 두 가지 사역과 관계해서 성령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의 수행자(effector providentiae generalis et specialis)이며, 세 번째 사역과 관계해서 택하신 자에게 자신의 구원 사역을 시행하시는 성령은 예정의 수행자(effector praedestinationis)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자는 성령의 일반 사역이라 부를 수 있고, 후자를 성령의 특별 사역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3. 성령 사역의 우주론적 차원

칼빈신학에서 성령은 창조와 섭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몰트만은 ‘성령 안에서 창조’의 신학적 개념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 실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칼빈을 이 개념을 천명했던 드문 신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간주했다.¹⁴⁾ 성령 사역의 우주론적 차원은 창조와 섭리와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따라 칼빈은 성령을 ‘생명의 수여자’(l'Esprit qui donne la vie)라고 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는 성령을 ‘생명의 보존자’(l'Esprit qui soutient la vie)라고 칭하였다. 성령은 모든 창조세계와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곳에 현존하시며 그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피조 세계에 또한 현존한다.¹⁵⁾ 성령과 창조세계 및 섭리와 관계해서 칼빈의 성령론은 한편 신적, 우주적 행위를 통한 신적 내재성의 극단적 사상을 나타내는 범신론과 다른 한편 신적 초월성의 극단적 사상을 주장하는 이신론을 모두 포함한다. 즉, 필연성 혹은 운명을 이야기하는 스토아적 사상 앞에서 종교개혁자는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 구별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운이나 우연

14) Jürgen Moltmann, *Dieu dans la création : Traité écologique de la création*(Paris : Les Editions du Cerf, 1988), p. 24. 마찬가지로 베르크호프(H. Berkhof)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칼빈과 그의 계승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내가 아는 한 성령론의 이 우주적 측면을 정당하게 밝혀 보려고 애를 쓴 유일한 사람들이다.” Hendrikus Berhof,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 The Annie Kinkead Warfield Lectures 1963-1964*(Richmond : John Knox Press, 1964), p. 96.

15) *IRC I*, xiv, 21.

을 말하는 에피쿠로스적 사상에 직면해서 그는 세계 속에서의 성령의 자유로운 내재적 활동을 강조했다.

칼빈은 창조세계에 생명을 주시며 그것을 보존하시는 성령, 그분의 활동을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이해했다. 첫째는 피조세계의 질서(ordre)이며, 둘째는 그것의 안정성(stabilité), 셋째는 그것의 아름다움(beauté)이다. 두 텍스트를 읽어 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성하고 정돈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형태도, 질서도 없는 덩어리였다고 이해했다. 이제 모세는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임을 가르친다. 어떻게 그러한 무질서의 혼돈의 덩어리가 존속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온전한 비율과 균형을 통해 세상이 현재까지 보존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세는 이 덩어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영의 비밀스런 권능을 통해서 현재 세상은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¹⁶⁾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la beauté du monde)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보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아름답게 꾸며지기 이전 이들 요소들이 형태와 질서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도 성령이 일하셔야만 했다.”¹⁷⁾

이 창세기 주석과 「기독교강요」 1권 13장에 의하면 성령은 세상에 질서와 안정성, 그리고 미를 주신다. 이것들은 피조물 자신이 그 자체로 또는 항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비밀스런 능력’(l'efficacité)

16) Calvin, *Le commentaire sur la Genèse*, 1 : 2.

17) *IRC I*, xiii, 14. 칼빈은 세상의 아름다움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즉, 성령은 창조세계를 유지하며 창조된 세계를 그들 존재의 모든 아름다움으로 남겨 놓으신다. 그래서 칼빈에게서 성령은 창조물을 장식하시는 분, 그분은 ‘예술가 하나님’(l'Artiste divin)이시다. 칼빈의 미학(Esthétique)의 문제, 특별히 성령과 아름다움, 창조세계와 아름다움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Léon Wencelius, *L'esthétique de Calvin*(Paris : Les Belles Lettres, 1979), pp. 7-49.

secrète de l'Esprit, arcane spiritus efficacia)에 의존한다. 따라서 성령께서 피조세계에서 자신의 숨결을 거두시면 그곳은 곧바로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무가 그것의 결과로서 나타날 것이다.¹⁸⁾ 칼빈은 다음과 같이 우주론적 차원에서 성령 사역의 고유성을 분명하게 요약한다. “성령은 모든 곳에서 편재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생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기를 주신다. 그는 어떤 장소나 한계에 제한되지 않으시며 피조물의 범주에서 벗어나 계신다. 그의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본질과 생명, 운동을 불어넣으신다는 것, 이것은 확실하게 신적인 것이다.”¹⁹⁾

4. 성령 사역의 인간론적 차원

칼빈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만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구속 받지 못한 인간 이성 그 자체가 비록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며 또한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길 원하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일반 은총 혹은 성령의 공통의 은혜가 인간 이성과 인간 의지 안에 머문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 최고선으로부터 박탈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 안에 그의 은혜를 남겨 두셨기 때문이다.²⁰⁾ “모든 이러한 은혜들은 하나님의 영의 은사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게 보이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인류의 공통적 선으로서 분배하신다.”²¹⁾

타락 후에도 인간 이성은 영적인 것에 있어서 무력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그의 기능을 가진다. 인간 본성에 고유한 이 이성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한다.²²⁾ 그러므로 인간 이성의 사용은 성령의 활동 아래에 놓인다. 과

학, 의학, 예술, 기술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전달된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작크 파니에(Jaques Pannier)는 “현세에서 사회적 활동에 관계된 은혜는 신자와 불신자에게 공통으로 관계한다. 종교개혁자 이후의 칼빈주의 신학 안에서 이 은혜는 일반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수용되었다. 이것은 인간을 하늘로 이끌어 가는 특별 은총의 역할과는 다른 목적을 지닌다. 이 일반 은총은 인간의 모든 능력들의 전적이며 광범위한 부패로 집약되는 것을 막으며 인간의 능력들이 전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말하였다.²³⁾ 칼빈은 그의 욕기 설교에서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런 사상을 전한다. “누군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훌륭한 교사가 되길 원하며, 훌륭한 변호사 혹은 훌륭한 의사가 되길 원한다면, 훌륭한 상인과 농민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이 모든 것에서 일하셔야 한다.”²⁴⁾ 이와 같은 칼빈의 사상은 사회, 정치, 문화, 교육, 과학의 광범위한 곳에서 그것의 발전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²⁵⁾

다른 한편 인간 의지 역시 성령의 통치 아래에 속한다. 타락 후에 인간들에게 여전히 몇 가지 덕들이 발견되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칼빈은 이러한 덕들을 성령의 행위로서 설명하기를 좋아했다. “나는 카밀루스(Camillus, 불신자)에게서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다.”²⁶⁾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들은 인간 본성의 악함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령의

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이성을 가지는 한에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놓으신 이 이성보다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하는 어떤 것도 없다.” *Le sermon sur le livre de Job*, CO 33, col. pp. 489-490. 이 일반 은총은 죄의 파괴적 결과를 억제한다.

23) Calvin,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1541)*, Tome, Premier, texte établi et présenté par Jacques Pannier(Paris : Société les belles Lettres, 1936), p. 314.

24) Calvin, *Le sermons sur le livre de Job 32 : 4*, CO 35, col. 23. 호르도르프의 글을 통해 재인용함. Rordorf, “Etiam Extra Ecclessiam : L'action de l'Esprit Saint selon Calvin,” p. 354.

25) Selderhuis Herman, “L'image de Calvin : chez Bolsec, Calvin et les autres,” *Jean Calvin et La France*, Textes réunis par Bernard Cottret et Olivier Millet, Société de l'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Paris : Droz, 2009), p. 285.

26) IRC II, iii, 4.

18) Hesselink, “Pneumatology,” p. 303.

19) IRC I, xiii, 14.

20) IRC II, ii, 15.

21) IRC II, ii, 16.

22) “우리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이성이 우리의 본성에 고유한 것으로 파악한다. 동물이 무생물과 구별되는 것과 같은 방식에서 이것은 우리를 짐승과 구별한다. 어떤 사람은 바보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러한 결점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la grace generale de Dieu)를 흐리게 하지는 않는다.” IRC II, ii, 17. “하

은사들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류 안에서 악인들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일하신다.

“이러한 실례들은 인간 본성을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평가하지 말아야 함을 경고한다. 왜냐하면 자연적 자극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탁월한 능력들을 행하게 할 뿐 아니라 평생 동안 매우 바르게(honestement) 행동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말했던 보편적 부패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재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부패된 본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닌, 내적으로 그것을 억제하며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⁷⁾

“악마들과 악인들도 하나님의 지배에 있는가? 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지는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어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한 끔찍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와 뜻에 반대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의지를 강압적으로 실행하신다.”²⁸⁾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패된 인간성에게 그들의 부패를 억제시키는 은혜를 주셨을까? 이것은 창조세계와 인간 사회를 보전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이다. 즉, 인간 본성의 부패로 인한 악인들의 광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부패된 인간성의 보편적 조건 아래서도 왜 어떤 사람은 다소 선하게 태어나고 반면 다른 사람은 다소 악하게 태어나는가? 이 문제를 칼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la grâce particulière, specialis gratiae,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구속적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와 관계시킨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거부된다.”²⁹⁾ 이것은 말하자면 세속

인간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비밀스런 충동’(une secrète impulsion de l'Esprit, arcano spiritus instinctu)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³⁰⁾ 불신자들에게 보이는 덕들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이다.

인간 이성과 의지에서 오는 모든 선한 것들은 성령의 행동에 귀속된다. 모든 일체의 선은 인간의 부패된 본성에서 기인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들에게 그들이 학문과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통의 은혜들을 주신다. 동시에 창조세계와 인간 사회, 성도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부패된 본성을 제압하면서 선한 덕들을 분배하신다. 이런 사실에서 인간 이성과 의지 안에서 성령의 활동은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일반 은혜들임을 칼빈은 강조하였다.

5. 성령 사역의 구원론적 차원

1)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끈으로서 성령

칼빈은 성령 사역의 구원론적 차원을 성령 사역의 우주론적이며 인간론적 차원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통해 저술했다. 그는 「기독교강요」 2권에서 인간 구원의 질료, 즉 토대로서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그가 우리 밖에서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완성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구마(L. Goumaz)는 “구원의 외적 특성”(le caractère extérieur du salut)이라 하였다.³¹⁾ 그러나 이 위대한 구원이 객관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타자’로서 바라본다면 칼빈의 정확한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멀리서, 우리 밖에서, 냉랭한 사색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si nous le regardons de loin et hors nous et d'une froide spéculation)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비활동적’(oisif)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³²⁾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27) IRC II, iii, 3.

28) Calvin, *Le Catéchisme de l'Église de Genève*, CO 6 col., 17.

29) IRC II, iii, 4.

30) Benjamin C. Milne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Leiden : E. J. Brill, 1970), pp. 197-200. 또한 *Le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Matthieu 26 : 56*을 보라.

31) Louis Goumaz, *La doctrine du salut d'après les commentaires de Jean Calvin sur le Nouveau Testament*(Nyon : Imprimerie Ed. Cherix, 1917), p. 225.

항상 우리 밖에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의 '구원 역사'(l'histoire de la rédemption)는 '구원 서정'(l'application de la rédemption)이 되기까지 무익할 뿐이다. 따라서 「기독교강요」 3권은 성령 사역론으로 구원 역사와 구원 서정의 관계를 설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그와 분리되며, 그가 인간 구원을 위해 행하고 고난 받으신 모든 일은 무익한 것이 되며, 어떠한 중요성도 가지지 않게 됨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될 때까지 그가 소유한 것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³²⁾

그러므로 각각의 개인을 위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와의 연합의 관점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그 자신에게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축복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땅에 있다. 어떻게 우리는 그 구원을 점유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직 성령의 비밀스런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령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에서' 일하신다. “성령의 비밀스런 사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모든 그의 복들을 향유하게 하는 원인이다.”³⁴⁾

이 점에서 나에게 칼빈의 교리는 종교개혁자 필립 멜란히톤의 유명한 명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Hoc est Christum cognoscere est beneficia eius cognoscere)를 뒤따르는 것으로 보인다.³⁵⁾ 이 명제는 기독교론을 구원론(성령론)으로 이끈다. 이것은 칼빈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본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분의 능력과 사역에

관심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떤 분이길 원하시며 어떤 목적에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적은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교황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가질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적나라한 본질만을 아는 것에 관심이 있고 구원하는 능력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⁶⁾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 알 때, 그때에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³⁷⁾

모든 칼빈의 기독교론은 구원론으로 연장되며 계속된다. 칼빈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마음 안에 '현존'(présent)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현존은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기독교론)를 살아 있게 하며 현존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성령을 통해서 실현된다. 칼빈에게서 그리스도는 단지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안에 역사 내적으로만 머물러 계실 수 없으며, 이것을 넘어서서 그의 영을 통해 그는 성도 안에서 '살아 계시며 현존한다'(vivant et présent). 그리고 이를 위해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살아 있게'(vivre) 하며 '살게 한다'(habiter).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의 영을 통해서 거하시는 것은 참되다.”³⁸⁾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에게 연합시킨다. 그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산다'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된다'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각했다.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거주'(habitation)와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n)은 칼빈에게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동일한 실재를 표현하는 다른 말이다.³⁹⁾ 그리스도의 거주와 그리스도와 하나 됨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풍요롭게 하며 채워 주었던 모든 일

32) IRC III, i, 3.

33) IRC III, i, 1.

34) IRC III, i, 1.

35) Mélanchthon, Loci 1521. éd., Kolde, p. 65.

36) *Le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1 : 49.

37) *Le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4 : 10.

38) *Le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14 : 3.

39)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1 : 24.

체의 선들을 나누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합을 위한 성령의 사역 때문에 칼빈은 그를 가리켜 ‘끈’(lien)이라고 불렀다. 즉, 성령의 비밀스런 능력은 우리와 구원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끈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효과적으로 그 자신과 우리를 연합시키게 하는 끈이다.”⁴⁰⁾ “이 결합의 끈은 그러므로 성령이다. 이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함께 연합하며 수로처럼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소유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온다.”⁴¹⁾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계해서, 성령의 사역의 주제는 빈번하게 칼빈에게서 나타난다.

“그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 것처럼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되게 하기 위해 일하신다.”⁴²⁾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신다. 그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가 우리를 그의 지체로 만드신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두어 지키시며 우리와 그는 상호적으로 소유하게 된다.”⁴³⁾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의 비밀스런 능력을 통해 연합한다.”⁴⁴⁾

이러한 언급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며, 그리스도께로 성도들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일하셔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어떻게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키는가?

40) IRC III, i, 1.

41) IRC IV, xvii, 13.

42) *Le 9^e sermon sur la Passion*(M 28 : 1-10), CO 46, col. p. 953.

43) IRC III, i, 3.

44) IRC III, xi, 5. “성령의 능력은 비록 장소의 간격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결합시킨다.” IRC IV, xvii. “우리가 주 예수를 찾도록 일깨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IRC III, ii, 1.

2) 지성의 조명, 마음의 확증, 양심의 보증으로서 성령의 사역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성령은 3가지 방식으로 일하신다. 첫째로, 그는 성서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킨다. 이것은 우리의 오성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통해 행해진다. “특별하고 놀라운 힘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신다. ……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그 마음이 ‘성령의 조명’(l’illumination du Saint Esprit)을 받아 새롭게 된 자에게만 열려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⁴⁵⁾ 칼빈은 그리스도의 연합이 외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내적으로 성령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중으로, 즉 내적으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외적으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⁴⁶⁾ 전자는 연합의 토대이며 후자는 그것의 실현이다. 그리스도는 이미 외적 혹은 객관적 말씀에 계시되었지만, 동시에 그는 내적으로 그의 성령을 통해서 관계되어야 한다. 확실히 우리는 칼빈이 성령의 사역을 우선은 성서의 기록과 편찬과 편찬된 말씀에 대한 증거와 관련해서 주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⁴⁷⁾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그의 내적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분이란 사실을 입증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증거하며, 입증하신다. 그 결과 칼빈은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관계된 모든 것은 성령의 은사의 결과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⁴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탐색하는 곳에 이를 수 없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지식에 인도함을 받는다.”⁴⁹⁾

45) IRC II, ii, 20.

46) IRC II, v, 5.

47) IRC I, vi-ix.

48)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 12 : 3.

49) *Le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11 : 34. “자기 자신은 그의 생각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나의 숨겨진 생각은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에게 접근할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인 성령께서 우리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면, 즉 그가 우리의 감각에 감추어진 많은 사실들을 알게 하신다면, 의심할 것은 어떤 것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모를 수 없기 때문이다. ……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스런 지체로 이것은 너무 높아서 인간의 연약한

그 결과 성령은 그리스도를 보여 주며 증거하는 성서와 분리될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즉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칼빈은 거부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며 그것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참되게 접근하게 한다. 이 연합을 위해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성령은 은혜의 수단인 성서를 본질적 수단으로 사용한다.⁵⁰⁾ 그러므로 연합은 잘못된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비매개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둘째로 그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증’(confirmation)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킨다. 성령의 조명이 인간 이성의 새로움이라고 말한다면, 성령의 확증은 우리 마음의 새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한 정신의 조명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며 감동시킨다. 에베소서 주석에서 칼빈은 “성령께서 정신을 조명하며 마음을 확증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의 조명과 마음의 확증을 같은 차원에 놓았다.⁵¹⁾ 정신에서 조명을 통해 받아들인 것은 마음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이제 남는 것은 오성이 수용한 것을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뇌리 속에 떠돌아다닌다면 말씀이 아직 믿음으로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수용할 때, 말씀은 마음의 깊숙한 곳에 그의 뿌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온갖 공격과 시험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조명에 의해 우리의 영혼의 참된 깨달음에 이른다면 그의 힘은 마음의 확정 안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마음의 불신이 지성의 어두움보다 더욱 크기 때문이다. 지성이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마음의 확신을 보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⁵²⁾

감각이 결코 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성령께서 소경의 눈을 여실 때에야 빛이 어두움을 비추게 된다.” *Le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2 : 11.

50) *IRC* III, ii, 33.

51) *Le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Ephésiens* 1 : 13.

52) *IRC* III, ii, 36.

칼빈은 마음의 확증을 이미 지성이 확실하다고 알고 있는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 마음속에 인 쳐 주시는 것과 동일시했다.⁵³⁾ 성령의 활동이 성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은 마음 그 자체였다. 이와 같은 칼빈의 주장은 그를 너무나 쉽게 주지주의자로 보려고 하는 경향과는 배치된다. 칼빈이 신앙에서 지성의 역할을 강조했다지만 지성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그는 감정(감정) 역시 중요시했던 신학자였다. 오히려 마음을 오성보다 더 중요하게 보려는 구절도 보인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 확증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오성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조명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 인간의 오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명된다. 그리고 마음은 진리 안에서 굳세어진다.”⁵⁴⁾ 켈러(K. Keller)는 신앙인의 삶에서 감정은 근본적인 것으로서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칼빈이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⁵⁵⁾ 인간 오성의 조명과 마음의 확증과 관계해서 칼빈은 성령을 ‘내적 교사’(Maître intérieur)라고 부르길 좋아했다. “성령은 영혼의 내적 교사이다.”⁵⁶⁾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약속했던 성령은 진리의 완벽한 교사 혹은 박사라 불린다.”⁵⁷⁾ “성령은 내적 교사이다. 이 교사로 인해 구원의 약속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며 우리의 영혼으로 파고든다. 내적 교사가 아니라면, 이 약속은 허공을 치며 우리의 귀를 울릴 뿐이다.”⁵⁸⁾

셋째로 성령은 ‘양심을 보증’(l'assurance de la conscience)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킨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심의 보증은 성령의 인 침으로부터 기인한다.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구원과 모든 그들의 신앙에 대해 가지는 진정한 설득은 육체의 감각이나 인간 이성 혹은 철학적 이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 침에서 오는 것

53) *IRC* III, ii, 36.

54) *IRC* III, ii, 33.

55) Carl-A. Keller, *Calvin mystique : au cœur de la pensée du Réformateur*(Genève : Labor et fides, 2001), p. 99.

56) *IRC* IV, xiv, 9.

57) *Le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16 : 12-13.

58) *IRC* III, i, 4.

인데, 성령의 인침은 그들의 양심을 더욱 보증하게 하며 더 이상의 의심을 하지 않게 한다.”⁵⁹⁾

칼빈은 그의 요리문답에서 이상의 조명, 확증, 보증의 3가지 방식의 성령의 사역을 동시에 언급한다. “성령님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감동시키며, 우리의 오성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보증하십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모든 일은 성령님 고유한 사역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⁶⁰⁾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합시키고자 하는 성령의 다음과 같은 3가지 활동의 특징들은 성령 사역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적용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요리문답에서 칼빈은 성령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보다 분명한 방식으로 언급한다. “우리 마음에 사시는 성령은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조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 안에 인치시며 새기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는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수단(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공된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받게 됩니다.”⁶¹⁾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거주”(l’habitation de l’Esprit-Saint)의 주제를 주목한다. 게다가 칼빈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거주를 수없이 주장했다. 그렇다면 신자 안에서 성령의 거주와 그리스도의 거주는 칼빈의 신학에서 서로 어떤 관계인가? 칼빈은 「기독교강요」 3권에서 성령은 단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주장한다. 역사하는 영은 참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이다. 성령이 인간 존재를 채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를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들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두 거주는 은유는 유일한 한 실재의 두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사실은 성령이 산

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서로 상호적이다. 칼빈에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3) 믿음, 성령의 주요한 사역

칼빈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신학적 주장에 대한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신뢰’(confiance)가 동반된 실존적 신앙이다. 이것은 모든 사상과 삶과 계획을 전복시키는 하나의 사건이다. 믿음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한다. 칼빈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산다는 사실이다.⁶²⁾ 칼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믿음의 항구적 대상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견고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기 때문이다.⁶³⁾ “믿음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소유한다.”⁶⁴⁾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 주 예수와 결합된다.”⁶⁵⁾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멀리서 관조하지 말고,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안으며 그를 영접해야 한다.”⁶⁶⁾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다. “믿음은 성령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이를 수 없다.”⁶⁷⁾ 칼빈에 의하면 성령은 ‘믿음의 저자’(l’auteur de la foi)이다.⁶⁸⁾ 칼빈에게서 믿음은 ‘성령의 비밀스런 사역’(l’opération secrète du Saint-Esprit)이다. 신자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성령은 그들을 복음의 광명으로 이끈다.⁶⁹⁾ 그리스도가 성령에게 주신 고유한 직무는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복음 진리를 알게 하는 데 있다.

62) CO 12. col. 488. by W. Kolffhaus, *Christusgemeinschaft bei Johannes Calvin*, p. 35.

63) IRC III. ii. 1.

64) *Le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6 : 47.

65) CO 50. col. 293, by W. Kolffhaus, *Christusgemeinschaft bei Johannes Calvin*, p. 37.

66) *Le Commentaire de l'épître aux Ephésiens* 3 : 17.

67) IRC III. i. 4.

68) IRC III. ii. 33.

69) IRC III. i. 4.

59) *Le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Ephésiens* 1 : 13.

60) *Le catéchisme de Genève*. CO 6, col. p. 111.

61) *Le catéchisme de Genève*. CO 6, col. p. 37.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 오성의 조명, 마음의 확증, 양심의 보증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합한다고 말하였는데, 이 세 가지 조명, 확증, 보증의 주제는 칼빈의 믿음의 개념에 본질적인 요소로서 나타난다. 현대 오순절운동들은 성령 세례의 외적 표시로서 방언, 예언, 병 고침의 은사들을 추구한다. 이러한 경향들은 믿음을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칼빈에게서 믿음은 “성령의 주요한 사역”(le principal chef-d'œuvre)이다.⁷⁰⁾ 믿음이 성령의 주요한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의 소유권이 둘 다 성령과 직접적으로 관계됨을 말한다. 즉, 성령의 주요한 사역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궁극적 사역, 말하자면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 믿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능력과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용어들은 대부분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인간 자신의 영향력 없이 성령이 ‘시작하며 완성시키는 사역’(le commencement et de tout le cours de la restauration de notre salut) 역시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은 믿음을 단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늘 왕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도록 하신다.”⁷¹⁾

6. 성령의 세 가지 사역들 사이의 관계

칼빈이 「기독교강요」 1권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의 이중지식으로 구분한 것처럼, 그는 창조주 성령과 구속주 성령의 사역을 구별한다. 칼빈에 의하면 우선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성령은 우주 전체와 자연의 질서, 또 인류 안에서 활동하며 역사하신다(한편에서 질서, 안정성, 생명력, 미, 다른 한편에서 이성, 의지, 자연법, 도덕, 기술과 학문 등). 이 활동은 인종과 종교와 관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보편적 은혜이다. 그런데 이 창조주 성령의 활동은 칼빈에게서 구속주 성령의 사역을 위한 외적 토대를 구성한다. 이 점에서 창조주 성령과 구속주 ‘성령 사역의 연속성’(continuité)

70) IRC III, i, 4.

71) IRC III, ii, 33.

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안에서 성령의 활동은 성령의 구속적 활동은 아니다. 불신자들에게서 성령께서 활동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님으로서 알 수는 없으며, 성령의 일반 사역이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일반 사역을 통해 세상 자체가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 즉,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계시에 핑계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참여할 뿐이다. 이들이 비록 죄인이더라도, 지혜, 명민, 아름다움, 세상적인 의미에서 의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들이 이 점에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은사들은 지상의 것, 현세의 삶, 저급한 관심사들로 제한된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 참된 의와 영생에 있어서는 철저히 배제된다. 이 점에서 창조주 성령과 인류 안에서 행해지는 창조주 성령의 사역은 구속주 성령의 사역과의 ‘불연속성’(discontinuité)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일반 은총들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축복이며 유익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넘어서는 학문과 과학과 기술은 남용이고 비합법적인 것으로 언제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 세속 권력도 마찬가지이다. 이 세상 권력의 행사는 칼빈에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지만 그 권력이 그의 질서를 넘어서며, 이 땅에 관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원한다면 부패되는 운명에 처하고 만다. 이런 관점에서 세속 권력에 대한 교회의 독립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칼빈의 끊임없는 관심을 이해해야 한다.⁷²⁾

반대적 측면에서 조명, 확증, 보증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성령의 구속적 활동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역시 단순하게 또 배타적으로 구원론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허무에 예속된 피조 세계의 우주적 비참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가진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

72) Rordorf, “Etiam Extra Ecclesiam : L'action de l'Esprit Saint selon Calvin,” pp. 354-355.

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생태계의 보존에 참여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이성을 사용하여 인류의 문화와 문명, 학문, 도덕의 긍정적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세 가지 성령 사역의 양태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칼빈은 우주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상위의 목적은 하위의 목적으로서 환경과 세계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7. 결론

칼빈의 성령 사역론의 정점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현존하게 하며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데 있다. 현존과 연합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동일한 실재를 표현하는 다른 말이다. 칼빈에게서 성령의 사역은 기독교를 구원론으로 연결시킨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살아 있게 하며, 살게 하며, 함께 하게 하며, 무엇보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다. 즉, 그리스도가 비활동적으로 계시지 않기 위해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칼빈의 구원서정 구조의 지배적 동기와 원칙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다. 게다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이 연합이 단순히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적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는 자의 내적 경험과 언제나 관계한다.

지성의 조명, 마음의 확증, 양심의 보증으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결한다. 성령은 우리의 오성을 그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깨닫게 한다. 성령은 성서를 지성의 조명을 위한 본질적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성으로 조명된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마음에서 확증된다. 칼빈이 지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지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닌 감정 역시 중요하게 여겼던 신학자였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양심을 보증하면서 구원의 확실성을 가져다준다. 궁극적으로 성령은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점유하게 하신다.

칼빈의 성령 사역론은 가장 넓은 차원으로부터 가장 본질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사역론의 지평을 넓혔다. 성령 사역을 교회와 신앙인에게서 본질

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하면서도 칼빈은 우주와 세상에서의 성령 사역의 지평을 열어 주었다. 창조주 성령과 구속주 성령의 사역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존재하며, 이 구별은 문화와 자연과 구원 이해에서 필수적이다. 세상 속에서의 성령의 일반 사역은 창조세계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하게 하지만, 그 한계점을 통해 구속주 성령의 사역을 요청하며 기다린다. 또한 구속주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속에 그 결정체가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창조 질서 보존의 책임과 참여, 세상 속에서의 직업과 소명,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신학적 근거 역시 제공한다.

참고문헌

- Calvin, J. *Ioh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59 vols. Edited by G. Baum, E. Cunitz, E. Reuss etc. Brunshwig : Schwetschke et Filium, 1863-1900.
- _____.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1560. 4 vols. Edited by Jean Daniel Benoit. Paris : Vrin, 1957-1963.
- _____. *Commentaires sur le Nouveau Testament* 4 vols. Toulouse : Société des Livres Religieux, 1892-1894.
- Bernard Rordorf. "L'inachèvement de la pensée trinitaire dans la théologie de Calvin." *Le christianisme est-il un monothéisme?* Edited by Gilles Emery and Pierre Gisel. Genève : Labor et Fides, 2001.
- _____. "Etiam Extra Ecclesiam : L'action de l'Esprit Saint selon Calvin." *Etudes Théologiques et Religieuses*(2009/3).
- Carl-A. Keller. *Calvin mystique : au cœur de la pensée du Réformateur*. Genève : Labor et fides, 2001.
- Doumergue Emile. *Jean Calvin :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IV. La pensée religieuse de Calvin*. Lausanne : Georges Bridel & Cie Editeurs, 1910.
- Hesselink John. "Calvin's theology."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Edited by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_____. "Pneumatology." *The Calvin Handbook*, ed. by Herman J. Selderhuis
Michigan : Eerdmans, 2009.

Ganoczy Alexandre, *L'aventure de la Réforme : Le monde de Jean Calvin*, Edited
by Pierre Chaunu Paris : Hermé, 1986.

Selderhuis Herman, "L'image de Calvin : chez Bolsec, Calvin et les autres." *Jean
Calvin et La France*, Paris : Droz, 2009.

Louis Goumaz, *La doctrine du salut d'après les commentaires de Jean Calvin sur
le Nouveau Testament*, Nyon : Imprimerie Ed. Cherix, 1917.

【한글초록】

칼빈의 성령의 사역론은 모든 그의 저서 곳곳에서 본질적 사상으로 나타난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 세 번째 인격이며, 또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효력이시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됨과 권위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 성령은 3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첫째는 우주론적 차원이다. 우주론적 차원에서 성령은 창조세계에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보존한다. 그의 보존의 차원은 피조물의 질서,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과 관계한다. 둘째는 인간론적 차원이다. 성령은 타락한 인간에게 몇몇 은혜를 남겨 두셨는데, 이것은 인간 이성과 의지 안에서의 일반 은총으로서 성령의 활동이다. 성령은 인간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이성이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도달할 수 없지만, 과학, 의학, 예술의 발전에 기여한다. 인간 의지는 죄로 인해 노예화됐지만, 여전히 인간 안에 덕들이 나타난다. 셋째로 구원론적 차원이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밖에, 멀리, 사색의 대상으로서 보게 하지 않고, 가까이, 우리 안에, 살아 있는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 칼빈에 따르면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끈이다. 성령은 인간 안에서 지성의 조명, 마음의 확증, 양심을 보증하시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킨다. 이 사역의 정점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인데, 이 믿음은 성령의 주요한 사역이다.

【주제어】

성령의 사역, 연합, 조명, 확증, 보증, 믿음

【Abstract】

John Calvin is of the opinion that there is an essential unity between the old and new covenants. It is a Trinitarian unity between the old and new covenants or a Christological-Pneumatological unity between the two covenants, which is related to the same God, the same Christ, the same Mediator, the same Spirit, the same covenant of grace, the same faith, the same hope, the same teaching, the same church, the same piety, the same salvation, etc. When describing the differences Calvin does so in terms of the compara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nd new covenants lies under pressure from two sides. The conflict with Rome forced him to put all the emphasis on the spiritual character of the new covenant in comparison to the old covenant. The conflicts with the Anabaptists forced Calvin to put the emphasis on the unity of the two covenants.

【Key word】

Calvin, Old Testament, New Testament, unity, difference, Salvation History